

자고 깨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정치와 경제가 시끄럽고, 교육과 문화가 시끄럽고, 종교가 시끄럽고, 환경이 시끄럽고, 먹는 것이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은 것이 없이 세상은 온통 시끄러움으로 가득하다.

지진과 화산과 태풍과 쓰나미가 가공할 위력으로 인간 세상을 위협하며 자연재앙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엇그제는 모 재벌그룹의 폐지 시설에서 일시에 몰려든 무료입장객 수만 명이 뒤엉켜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인간 세상은 생로병사가 아니라더러도 갖가지 위험으로 충만해 있다. 천재(天災)는 물론, 문명의 이기로부터의 위험이 천재를 능가할 만큼 가공스럽게 되었다. 오래 전에 런던의 스모그가 인간세상을 경악케 하더니 대만의 행린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와 이태리의 익메사와 인도 보팔의 다이옥신 유출사고가 또다시 우리를 경악케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리저리 열차 화약 폭발사고, 낙동강의 페놀 유출사고, 여수 화학공장의 화학 오염 폭발사고를 비롯하여 입장객 사고만 하더라도 서울역 승객 입장사고, 몇 달 전의 상주공설운동장 입장사고에 이어 똑같은 사고가 엇그제 또 롯데월드에서 발생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번 사고는 그 이전에



불자 세상보기

조 병 갑 칼럼니스트

악덕기업과 불감소비자

발생한 안전사고로 실추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로 선심무료게장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기업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스스로 자기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 천 명이나 입장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스스로 상상이 안되는 안전불감증으로 놀이시설에 탑승하여 목숨을 잃는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라 할 것이다.

모 항공사의 여객기가 구소련 무르만스크에 불시착한 사고나 사할린 앞 바다의 격추사고도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일 것이라고 스위스재보험사의 고위관계자는 추정했다.

수년전에 모 수도 사업소의 직원은 "소독을 위한 크로카키의 투입은 대충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니 모 제과업체의 회장은 "사업은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입할 때는 보세수조에서 검역도 하기전에 밤새 밀반출되고 있었고, 수산시장의 활어판매장엔 원산지 표시가 없어도 회집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예전엔 백색조미료를 머리가 좋아지는 조미

료라고 선전했고, 발암물질인 크로로헥사펜을 함유시킨 세수비누를 피부가 좋아지는 비누라고 선전했다. 얼마전에는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감미료가 아토피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에 식품제조업체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어쩔쩔 논이나 검증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자본주의는 기업가의 기업윤리를 전제로 하는 경제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에만 눈이 먼다면 악덕기업일 수밖에 없고 결국 기업은 고객들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은 계속되고 소비자는 둔감하여 불감증에 빠져있다.

인공위성이 아무리 커도 우주공간에서는 모래알 보다도 작은 것일 터인데 그것들이 무한의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하는 시대에 입장객 안전하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없는 기업이 일류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자들이 연구의 목적이 뒤바뀌어도 모르는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니라 도박이 되고 코미디가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술 더 떠 그 난리를 떨고, 국민들은 그 과학자 그 정부와 함께 높았으니 세기의 문명사가 코미디가 될 판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 갈 것인가?

불자의 눈

소수종교단체인 원불교가 2007년부터 군중장교를 파견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군의 불교교를 독자지하고 있던 조계종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충격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종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그동안 불교 내부에서 천태종과 진각종이 군중법사 파견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원불교가 군포교 현장에 힘투게 뽐으로 불교계의 종단들도 요건만 갖추면 군중법사 파견이 가능해 됐다. 이 시점에 우리는 군포교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생각을 해야 한다.

첫째, 군포교 만큼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기는 없다. 어린이·학생·청년에 대한 포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층의 포교를 전략적으로 벌일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종단은 보다 적극적 전략으로 계층포교의 황금어장에 불교의 미래를 걸고 총책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

군포교 현장 더 강화하자

사람 1부대 지원과 군중교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불교 캠페인 등에 전 종도가 협력하도록 총무원이 본·말사 주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군부대 내 법당이 없는 곳이 태반이고, 법사들의 법화자료와 법회 시간지원은 타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다.

셋째, 법사의 질적향상과 충원이다. 법사 후보생의 성직자로서의 신행과 의례 및 설법 그리고 품위를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 강화하여 투철한 포교전법사로 양성하고 예견 후에도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마다 군법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부터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불교에 배정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타종교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국대 불교대의 정원확충과 천태종이나 진각종 등 타종단과의 제휴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종단에서는 지난해 군중교구 발족으로 군불교 포교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원불교의 군중 진출 결정을 계기로 불교의 위축을 염려하는 여론을 의식하여 종단과 현역 법사들이 보다 더 철저한 포교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법사(동국대 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삶의 질

내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인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여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 <벽암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월 28일 발간한 2006년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30개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6%로 OECD 회원국 중 7위였지만,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43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공교육비는 GDP 대비 4.2%로 OECD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반면 사교육비는 2.9%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우리의 사회지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결국 자녀의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질 높은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불행한 사회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계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한국의 출산율은 2002년 기준 1.17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이는 자녀부양으로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출산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국민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

■ 김원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스님 탁발은 안돼요

스스로는 어쩔뿐 불자라 여기며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다. 소규모 식당업을 하는 나는 탁발을 다니는 스님들을 하루에 적게는 서너 번, 많을 땐 열 분 가까이 뵈는다.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탁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데, 내가 사는 이곳은 유난히 스님들의 탁발이 잦은 듯하다.

일부 행편이 어려운 스님들이 탁발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될 테지만, 때로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니다.

한번은 손님이 입구에 앉아있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다 드시고 가실 때까지 네분의 스님이 가게를 다녀갔다. 손님 가운데 한분이 "요즘 절에는 XX만 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땐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 불자인 내가 봐도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탁발을 나온 스님에게 시주를 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겠지만, 속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살피지 않고 이렇듯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의 관련 부서가 좀더 엄격하게 탁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주기를 당부한다.

인천(人天)의 스승인 스님이 일반인들에게 그저 탁발이나 받으러 다니는 사람

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김학리(경북 영천시 문외동)

상처는 함께 치유해야

최근 붓다뉴스(3월 29일자)에서 조계종 홍보부장 도진 스님의 인터뷰를 보고 큰 공감하는 바가 크다. 불제자로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도진 스님은 "상처는 도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치유하여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요즘 조계종의 현실에서 한번쯤 되새겨 봐야 할 진정한 보살행이 아닐까한다.

대중이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지 못했거나 갈등을 일으켜 세인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 경우 그 상처를 단지 도려내는 것만이 능사라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상처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여기고 같이 치유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기는 쉽지 않다.

무조건적인 자비와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 없이는 대중승가를 유지하기 어렵다. 잘못을 저지른 자도 참회하고 정진하면 다시 대중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불교다.

경전에서조차 부처님께서 대중의 회합에 대한 말씀이 늘 빠뜨리지 않은 것을 보면 대중이 화합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조계종은 근대에 들어서만 크고 작은 다툼으로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조계종만이라도 특 하면 '법'을 찾고 고소·고발하는 일을 멈추고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대중화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애(붓다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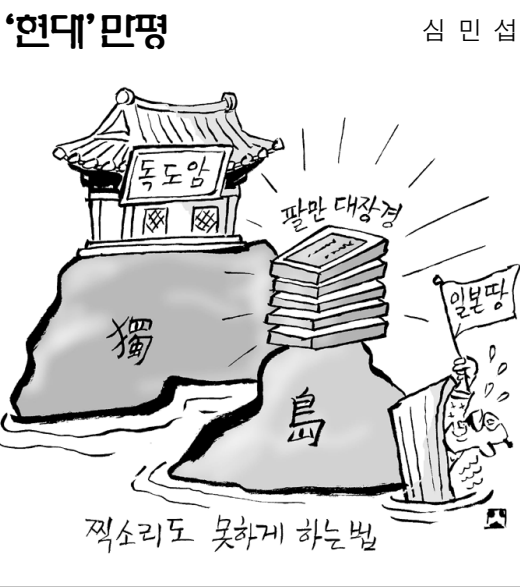
지운 스님 감사합니다

지난주(5/7)로 현대불교신문에서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강의가 인기라는 기사를 읽었다. 지난해부터 강주 소임을 맡으면서 불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법회를 열었고 있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자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달려가 설법을 펴시는 그 모습에서 참다운 스님의 면모를 느꼈다.

특히 끝난 뒤에는 스님의 초소인 심검당(尋劍堂)에서 다시 또 불자들의 질문을 받으신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대구의 불자들이나, 불자들의 요청에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 주시는 스님의 모습이나 하나같이 아름답다.

일전에 스님이 송광사에서 계시 때 지적에 살면서도 스님께 법을 물으러 다니지 못한 나의 게으름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대구의 불자들은 부디 열심히 배워 공부를 성취하시길 기원한다. 나 또한 역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

태평(붓다뉴스)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중화학(주), 국립경향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아시렵니까?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 음기(사기) 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병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天一氣功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계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계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여기 음계(냉한몸)를 양계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약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심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